

# 분회를 중심으로 브랜드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

□ 취재/이유혁 기자

**본** 회 양평육계분회(분회장 지충근)는 지난 7월 19일 제3차 이사회에서 분회 설립이 승인되어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된 연륜이 가장 짧은 육계분회이다.

양평읍을 거점으로 하여 용문, 지제, 양동, 청운, 계군, 옥천, 강하면을 활동무대로 하고 있는 양평육계분회는 회원이 35명에 이르고 있어 신흥 육계집산지로 발돋움 해가는 양평관내에서 육계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90년경에는 양평 일대에 육

계농가는 20여호 밖에 되지 않았으나 '93~'94년 사이에 외지인의 유입과 관내 농가들이 육계사육에 관심을 갖고부터 현재는 70여 농가로 늘어나 약 300만수의 육계를 생산하는 곳으로 탈바꿈 하였다.

신흥지역인 탕으로 계약사육 농가가 약 70%이며 나머지 30%는 일반 개인사육 농가인데 경력이 5년 이상인 농



△ 분회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회장(우)과 총무(좌)

가는 30%선이며, 나머지 70%가 5년 이내로 대체적으로 연륜은 짧으나, 닭들은 대개 수십년의 경력 농가 못지 않게 잘 키우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지충근 분회장은 강조하고 있다.

분회 설립 초창기부터 분회장과 동거동락해온 이시연 총무는 지역 특성상 계약사육 농가들이 많아 협회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고 그간의 고충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나이가 든 원로들의 협조와 육계업에 대한 새로운 직업관을 가지고 도전하는 젊은 층의 지지와 이해가 있어 오늘날의 양평육계분회가 탄생되었다고 덧붙였다.

이곳 양평분회는 계약사육 농가가 많고, 유통업자가 없으며, 지역적으로 농가들이 끌고 루 산재해 있어 타지역에 비해 질병 발생율이 적고, 경력들이 짧은 대신 누구 못지 않게 닭을 잘 키우겠다는 연구·노력하는 자세가 서있어 출하 체중이 평균 1.6~1.7kg이 되어도 생산지수가 평균 200대에 도달하는 농가가 많은데 병아리만 우량하면 생산지수는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 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렇다 보니 육계인들이 모여 생산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토의하게 되자 자연적으로 질병예방 교육, 사후관리, 계약 조건에 공동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양평육계분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왔다.

특히 분회를 이끌고 있는 지충근 분회장은 군복무(해군) 시절 화생방 교육을 전담했던 경력을 활용, 계사환기에서는 일가견이 있어 회원 농가에 온도와 환기, 유해가스, 산소결핍 등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교육도 할 만큼 상당한 이론과 경험을 지니고 있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이 열리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회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인연이 되어 험난한 분회장직을 맡아 분회를 이끌어 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아직은 변변한 사무실조차 없는 모습이지만 지충근 분회장과 이시연 총무는 '97년 쯤이면 현재 보다 훨씬 발전한 분회로 이끌어 올리고, 또한 회원들이 분회가 무엇을 해준 다기 보다는 경쟁 사회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협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참여도가 높아진다면 양평육계분회 회원들이 생산한 닭고기는 뭐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자체 상표화(브랜드)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에 도전장을 낼 계획임을 확실히 밝히면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서 좀더 리더십이 있는 분회장을 모시고 임원진과 함께 깨끗하고 청정한 양평지역이 육계업의 면모를 일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기적인 계획도 밝히는 모습에서 젊은 층이 많다는 양평육계분회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양계**

| 양평분회 회원명단 |     |
|-----------|-----|
| 지충근(회장)   | 오홍일 |
| 이시연(총무)   | 이강명 |
| 김선호(감사)   | 이계표 |
| 송철호(감사)   | 이동우 |
| 김관식       | 이상운 |
| 김남경       | 이의운 |
| 김성현       | 이점태 |
| 김예수       | 이희동 |
| 김은성       | 위성환 |
| 남윤천       | 조민석 |
| 노경천       | 조성복 |
| 맹주문       | 정충환 |
| 박범희       | 최동균 |
| 박병용       | 최윤식 |
| 박왕춘       | 황선태 |
| 박황원       | 황순도 |
| 안철영       | 허정무 |
| 양정일       |     |